

# 2월 온라인쇼핑 19조...농수산물 3년만에 최대 ↑

### 명절·할인 행사에 농축수산물 49% ↑ “설 명절 관련 상품군 전년 대비 증가”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설 명절 맞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친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은 2021년 1월 이후 37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올해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보다 11.0%(1조8856억원) 증가한 18조9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 보면 2월 초까지 진행된 설 맞이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전년 대비 증가 폭이 48.9%(3572억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월 전년 대비 63.8%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율이

다.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이 늘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21.6%·3801억원)의 증가폭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 2월 거래액은 2조1369억원이다.

총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13.6%)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료품 거래액도 전년보다 20.9%(4451억원) 늘어난 2조57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은정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사실 2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날짜 수가 적어 거래 규모 자체는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명절과 연관이 있는 상품군들이 전년 대비 증가를 주도했다고 집계되고 있다”며 “식자

재리든지 설 연휴로 인한 여행·교통 수요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신기기는 전년 동월 대비 21.7%(1536억원) 감소했고, 화장품도 11.7%(1275억원) 줄어 들었다.

전월 대비로는 신발(19.3%) 등에서 증가했으나, 음·식료품(-11.7%), 여행 및 교통서비스(-8.0%)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6%)이 가장 컸고, 그 뒤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11.3%), 음식서비스(1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12.1%(1조5303억원) 증가한 14조2039억원으로 집계됐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0.6%포인트(p) 증가한 74.8%였다. 모바일쇼핑은 상품군 중에서 통신기기(-18.5%) 등에서 줄었지만, 음·식료품(24.6%), 여행 및 교통서

비스(23.5%), 농축수산물(52.7%) 등에서 늘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4.3%)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음·식료품(14.0%), 여행 및 교통서비스(10.2%)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음식서비스(98.4%)가 가장 높았고, 애완용품(82.5%), 아동 유아용품(82.1%)이 뒤를 이었다.

취급상품 범위별로 보면 종합물의 거래액은 10.8% 증가한 11조8776억원을, 전문물은 11.3% 증가한 7조990억원을 기록했다.

운영형태별로는 온라인전용몰 거래액이 12.6% 오른 14조6489억원, 온·오프라인병행몰이 6.0% 증가한 4조3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매판매액 중 여행 및 교통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제외한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 비중은 26.5%로 나타났다. /뉴시스

## 전남도,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환영

전남도가 기업의 투자 적기 이행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 등 투자 기반(인프라) 조성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는 송전선로 신속 구축 지원 대책으로 그동안 전력이 부족해 적기 투자가 어려웠던 광양만권 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현장 애로가 해소됨으로써 미래 첨단산업의 신속 투자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업 투자 밀착 지원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광양만권 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현장 애로가 해소됨으로써 미래 첨단산업의 신속 투자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업 투자 밀착 지원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광양만권 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현장 애로가 해소됨으로써 미래 첨단산업의 신속 투자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전력공사와 애로 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한국전력이 산단 공급 전력에 한해 기업 전용 회선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력 공급 확보에 애매우는 광양만권 이차전지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의 기자



**바나나 수입량, 지난해 대비 42.6% 증가** 올해 들어 국산 과일값 강세에 사과와 배 수출은 급감하고 바나나와 파인애플, 오렌지 수입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사과 수출량은 58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2%, 배 수출량은 137t으로 62.5% 줄었다. 반면, 바나나 수입량은 6만2500t으로 42.6%, 파인애플은 1만2610t으로 31.5%, 오렌지는 9964t으로 129.6% 증가했다.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바나나를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 전남도-지역상공회의소, 지역 미래비전 실현 맞손

### 국립의대 신설·첨단산업 육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협약

전남도는 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립의과대학 신설, 첨단산업 육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남도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광주 등 5개 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 산단 조성과 기회발전특구 선

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각 비전사업 진행에 지역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방침이다. 상공회의소도 도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각 상공회의소의 역점사업을 도정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5대 상공회의소 중 순천을 제외한 목포, 여수, 광양, 광주 등 4개소가 올해 회장단이 새롭게 취임해 자체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선 신규 취임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순의 기자

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각 비전사업 진행에 지역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방침이다. 상공회의소도 도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각 상공회의소의 역점사업을 도정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5대 상공회의소 중 순천을 제외한 목포, 여수, 광양, 광주 등 4개소가 올해 회장단이 새롭게 취임해 자체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선 신규 취임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순의 기자

## 순천 기업경기전망 '113' 3분기 만에 기준치 상회

순천지역 제조업체가 체감하는 2분기 기업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상공회의소는 최근 관내(순천, 구례, 보성)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13'을 기록해 3분기 만에 기준치(100)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남지역 BSI '109'를 다소 웃도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사업 실적 관련, 조사에 응한 업체 중 27.9%가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를 '원자재가·유가 불안정'을 꼽았으며 '내수소비 위축' 응답이 25.6%로 뒤를 이었다.

상반기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보수적으로 유지할 예정인 업체는 86.9%를 차지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가 등 생산비용 증가(39.1%)'라고 답했다.

이는 조사에 응한 업체 중 62.5%가 비용 상승 요인으로 인해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순천·조순의 기자

## 기아, 인증 중고차 보상판매 개시...최대 30만원 할인

### 출고 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 차량 매각 가능

기아가 중고차 '트레이드-인(보상판매)'을 시작한다. 이는 기존 중고차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출고하거나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던 기아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매각하면 최대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월) 밝혔다.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던 기아 차량이 신차 출고 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의 무사고 차량이라면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 가능하다. 기존 보유 차량을 매각한 고객은 기아 ▲EV 전 차종 ▲K5(HEV 포함) ▲K8(HEV 포함) ▲봉고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에서 3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외의 차종을 구매하는 고객은 10만원 할인받는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고객은 신차 출하 당일까지 기아 인증중고차 웹사이트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 여수광양항만공사, 정치적 중립 선언식 개최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1일 사옥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지를 담은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선언문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공정선거문화 정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박성현 사장은 “우리 임직원들은 지난 교육을 통해 각자의 의무와 금지

행위 등을 숙지했다”며 “오늘 선언식은 교육받은 내용을 각자의 업무와 위치에서 철저히 준수하지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투표일까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 광주 첨단산단 근로자도 '반값아침'

### 테크노파크에 산단근로자 조식지원센터 개소

### 하남산단 이어 2호점...김밥·샐러드 등 2000~3000원



광주지역 근로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간편한 아침 한끼 2호점'이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하남산단에 근로자 조식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이날 첨단산단 광주테크노파크에 2호점'이 문을 열었다.

아침한끼 첨단산단점은 광산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아 월~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김밥, 컵밥, 샐러드 등을 50% 할인

된 2000원~3000원에 판매한다. 광주시는 50%를 지원한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음식을 바로 식사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됐으며 하루 100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3월 27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문을 연 하남산단점은 12월 말까지 1만9184개의 샌드위치와 샐러드가 판매되는 등 하루 평균 102명의 근로자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김도기 기자

## 중기부, 청소년 '스마트인 앱+챌린지'

### SK플래닛 공동개최...오늘부터 T아카데미 누리집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SK플래닛과 함께 청소년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트인 앱+챌린지 2024'를 개최하고 오는 2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인 앱+챌린지'는 청소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창의적인 개발자를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개최된 경진대회다.

지난 13년간 총 4213개팀(1만4602명)이 참가해 449개 앱이 상용화됐고, 55개팀이 창업 성과를 거뒀다. 출신 창업팀 중 샌디플로어, 나인투랩스, 비팩스 등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챌린지에는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생활정보(AI·IoT·생활분야 전반) ▲엔터테인먼트(게임 및 Fun 분야·AR/VR 활용) 2개 분야로 구분해 모집하며 시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팀'과 개발 역량이 없어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팀'으로 나눠 진행된다.

중기부는 오는 9월 최종 35개팀을 선정하고 '청소년비즈니스 페스티벌'에서 상생(중기부 장관상 등)과 총 5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페스티벌 부스 전시와 창업 인터넷 방송 '쫄투' 출연 등도 지원한다. 대상 3개팀에는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개발팀은 내달 12일까지, 아이디어팀은 6월9일까지 SK플래닛이 운영하는 T아카데미 누리집(http://academy.skplanet.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권형안 기자

생 및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생활정보(AI·IoT·생활분야 전반) ▲엔터테인먼트(게임 및 Fun 분야·AR/VR 활용) 2개 분야로 구분해 모집하며 시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팀'과 개발 역량이 없어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팀'으로 나눠 진행된다.

중기부는 오는 9월 최종 35개팀을 선정하고 '청소년비즈니스 페스티벌'에서 상생(중기부 장관상 등)과 총 5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페스티벌 부스 전시와 창업 인터넷 방송 '쫄투' 출연 등도 지원한다. 대상 3개팀에는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개발팀은 내달 12일까지, 아이디어팀은 6월9일까지 SK플래닛이 운영하는 T아카데미 누리집(http://academy.skplanet.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권형안 기자

## 광주시 '가족친화경영 전문 컨설팅'

### 공인노무사 등 맞춤형 지원...선착순 모집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가족친화기업인증에 어려움을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컨설팅은 10곳을 지원할 계획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2일부터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은 기업·기관에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가족친화전문인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파견해 가족친화경영 제도와

설계 관련 맞춤형 상담을 1대 1로 지원한다.

상담은 '서류 및 현장 심사대비 상담을 통한 가족친화인증 지원'·'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도입·설계와 가족친화 문화조성 프로그램 연계'·'인사·노무법규에 따른 취업규칙·직무지침 점검'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일가정양립 프로그램 등 총 18개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김도기 기자

## 광주식약청, 배추김치 수출 업체 현장 소통

### 김치 수출 확대 협력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29일 세계김치연구소에서 광주·전북·전남 등에 위치한 김치수출업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과 함께 마련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김치 수출 사례 발표 ▲수출 지원사업(해외통관 및 등록제도, 미 FDA 표시제도

등) 세부 사항 안내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송성욱 광주식약청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이번 간담회가 지역특화식품인 김치가 글로벌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업계·전문기관이 함께 고민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우수한 김치 생산을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형안 기자